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예수 이름 높이어(찬36/새36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인권 장로 2부/김세진 장로 3부/김응진 집사 4부/남경인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예수의 흔적(이혜정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사도행전(Acts) 16:26-34.....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3:1-3
- 말씀 Message ..... 1, 2, 3부.....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소망이 끊어진 때, 구원의 빛을 비추시다

4부 .....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45): 영적 분리불안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부/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찬363/새337장) 2, 3부/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라
- 헌금 특송 Offering Song ..... Paul Min & Zion **공민 & 시온 선교사**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 .....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 무명의 사람들이 여는 신문명

The New Civilization Opened by the Unknown



이충경 목사 / Rev. Choong Kyung Lee

우리는 '유명'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더 많은 팔로워를 얻으며, 더 주목받는 것에 열중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진정성과 내실이 없는 과장된 것들이 문제입니다. 유튜브 등을 보면 유튜버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고, 과욕을 부리다 보니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유명한 교회에 소속해 있어서 할 말이 없지만, 이름난 교회,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이름 없는 섬김은 쉽게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스테반 집사의 순교 후 흠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몇 사람'이라고만 기록합니다(행 11:20). 그러나 바로 그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했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증언합니다(행 11:21). 안디옥 교회는 단순한 지역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진 대안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문명을 연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베델교회에서 함께 본 '무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을 사랑했던 두 일본인 선교사의 삶을 조명합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와 오다 나라지라는 이름 없는 선교사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라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조선인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오다 나라지 선교사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임을 외치다 고문을 당하고 강제 추방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고난받는 조선인들과 함께하며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름 없는 성도들의 기도과 눈물, 헌신과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세상이 유명을 추구할수록, 성도는 무명을 자랑해야 합니다. 소요리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성도가 무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고, 십자가 뒤에 이름이 가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명의 사람들이 여는 신문명입니다.

We live in a time that chases fame. People want their names known, more followers, and more attention. It's fine to show yourself to some degree, but the problem comes when it's fake and empty. On YouTube, many try to get famous by making more shocking videos, sometimes even causing trouble. Sadly, the same happens in the church. I serve in a well-known church myself, but it's true—famous churches, pastors, and programs often get the spotlight, while unseen service is easily forgotten.

In Acts 11, we see the Holy Spirit at work in surprising ways. Who does God work through? After Stephen was killed, some believers spread as far as Antioch, sharing the gospel. They were not apostles or well-known people. The Bible simply calls them "some of them" (Acts 11:20). Yet those unnamed believers preached Jesus to Gentiles in Antioch—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Antioch church. Scripture says,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Acts 11:21). The Antioch church was not just another local church. It became a new kind of community where Jews and Gentiles worshiped together. It became the center of mission—a base for God's work to the nations. In short, the unknown believers opened God's new civilization.

Recently at Bethel Church, we watched a documentary called Anonymous. It told the story of two Japanese missionaries who loved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Masayasu Norimatsu and Naraji Oda. Though they lived in dark times under Japanese rule, they chose to live among Koreans and share the gospel. Missionary Oda even suffered torture and was forced to leave the country for saying that bowing to Shinto shrines was idolatry. They did not seek fame. They quietly planted the gospel seeds while standing with the suffering people.

The kingdom of God is not built on the names of the famous—it stands on the prayers, tears, service, and obedience of those without names. The more the world seeks fame, the more believers must honor humility.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says,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How is God glorified? When believers become unknown so that His work may shine, when our names fade behind the cross, God's name becomes famous. This is the new civilization opened by the unknown.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이충경 목사

# 소망이 끊어진 때, 구원의 빛을 비추시다 사도행전 16:26-34

1. 당신은 기독교로 들어오는 3가지 문(환경의 문, 진리 탐구의 문, 특별한 체험과 위기의 문) 중 어떤 문으로 들어 왔나요? 나의 신앙 여정을 간단히 나누어 봅시다.
  
2. 빌립보 간수처럼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음성은 어떤 모습(말씀, 사람, 환경, 기타)으로 내게 찾아왔나요?(행 16:28)
  
3.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행 16:31) 내 삶의 어떤 영역을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나요?
  
4. 간수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연합을 경험했듯이, 나는 날마다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내 안의 혈기, 교만, 탐욕, 미움 중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갈 2:20, 고전 15:31)
  
5.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몸이 상하셨기에 더 이상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부터 나를 상하게 하던 어떤 것들을 멈춰야 할까요?

적용하기



■ 적용찬양: 1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찬363/새337장) 2,3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라

비전 탐방  
한국선교 140주년

#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말로만 전해 들었던 고종 때, 1885년 4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부부, 유진 벨 등 외국 선교사님들께서 조선에 오셔서 삶을 헌신하고 선교의 자취를 기록으로 남기신 몇몇 선교기념관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 보았습니다. 당시 탄압받던 선교 현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복음의 근원지인 함경남도 원산에서 서울 배재학당으로 보내신 이유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빛의 자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이북 원산과 평양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뿌린 믿음의 씨앗과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깊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 영광의 두 교회(아월/염산)를 방문하며 순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빨치산 폭도들의 질문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었지만, 'No'라고 하고 죽음을 택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저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

게 고민하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거듭난 성도로서 'No', 믿음을 택하겠지요.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이어온 저를 비롯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과연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복잡하게 믿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답이 달린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남은 삶을 세어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로 매일 순교의 신앙을 지켜 살아가게 하소서.

끝으로, 140주년 한국 선교 역사 비전 탐방 여행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근 목사**

사역 소개  
통역

## 다른 언어 같은 예배



통역사역팀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예배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모든 세대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복음이 언어를 넘어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섬기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저희 통역사역팀은 매주 토요일 헬시바 기도회와 주일 1, 2, 3부 예배에서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 새벽기도회, 부흥회, 신학 강좌, 특별 세미나 등 교회의 주요 집회와 행사에서도 통역을 맡아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고르게 전해지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통역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아날로그 통역기를 통해 들을 수 있으며, 원하시는 분들은 Discord 앱을 통해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통역을 통해 같은 은혜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교회의 관심이 다음 세대에 집중되면서, 영어에 더 익숙한 1.5세대와 2세대 자녀들, 그리고 외국인 성도님들을 위한 통역사역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성도님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어의 벽

을 허물고 세대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 통역사역 팀원들 또한 통역을 준비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매주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미리 받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받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끼며 큰 기쁨과 보람을 얻습니다.

앞으로 통역사역팀은 더욱 정확하고 은혜로운 통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많은 성도님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김진환 집사**

**훈련 간증**  
기도학교

#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



제가 속한 기도팀은 매년 봄학기과 가을학기, 두 번에 걸쳐 기도학교를 준비합니다. 매 학기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며, 교회 안에서 기도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듭니다. 기도학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기도의 자리는 사람이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기도팀을 섬기며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학교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일입니다. 매 학기마다 신청 마감 무렵이 되면 등록자가 몰리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매회 조장으로 섬기시는 한 권사님께서 지난 학기에 함께했던 조원들에게 다

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오도록 권면하고 격려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새삼 깊이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베델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에도 큰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둘째는, 기도학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 혹은 교회에 오신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낯설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분들이 점점 기도의 기쁨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드럽게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서로를 권면하며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익숙한 삶의 리듬과는 달라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학교를 섬기며 알게 된 것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어제보다 오늘 더 선명하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분들이 많은 베델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승화 집사**

**사역 간증**  
카페 봉사

# 섬길 수 있음이 큰 은혜



새가족 환영회 날에 주신 희망봉사란에 아무 생각 없이 주차 봉사를 체크했는데, 그것이 어찌다 보니 봉사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카페 또는 주차 봉사로 인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자연스럽게 베델교회가 제 교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한 교회란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 같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이전 삶의 주말과 비교해 보면 베

델교회에서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간혹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나를 내세우고 겸손을 잃고 무례한 말과 행동이 보여서 마음의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한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1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집에 가시려 하는 중에 한 키 크신 젊은 분이 서 있고, 차에 타고 계신 분이랑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길로 나가는 도로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어서 뒤에 차들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짧은 담화라 생각하고 한 5초를 드렸는데 계속 교제를 나누시길래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뒤에 차 막혀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도 급하고 거리가 좀 멀다 보니 제 목소리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키 크신 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시다 보니, 제가 목사님한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전 바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남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자로서 섬기는 자리이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명심했습니다.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며 정든 분들, 봉사 사역이 끝나다 보니 매주 만나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지금도 봉사의 자리마다 손길이 필요하다면 달려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 베델인이 되었구나 하며 나아갑니다.

**최혁성 집사**

교회학교  
체크인 부스

# 주일의 시작, 믿음의 문 – Welcome Kids



Kids Check-In 사역은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의 교회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400명 이상의 학생이 Check-In 텐트를 통해 등록하고 있으며, 교회학교의 출석 관리, 안전 확보, 효율적인 픽업 절차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텐트에서 Check-In을 하면 학생의 출석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되고, 학생 이름표 라벨과 학부모용 픽업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각 부서는 실시간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성경 지참, 구절 암송, 매일 QT 등의 수업 기록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이름표를 통해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캠퍼스 내 학생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ids Check-In 텐트에는 현재 14명의 집사님과 권사님이 매주 봉사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매 주일 이른 아침부터 텐트와 모든 장비들을 준비하고,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소로 맞이하고, 학부모님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단순한 절차를 넘어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봉사자들의 환한 미소, 따뜻한 인사, 그리고 정성 어린 손길이야말로 이 사역의 중심입니다. 주일 아침의 분주한 순간 속에

서도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가는 살아있는 복음 공동체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며, 모든 봉사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 <학부모 안내>

교회 도착 전 [checkin.bkc.org](http://checkin.bkc.org)에서 미리 Check-In을 완료하고, 핸드폰으로 받은 QR 코드를 텐트의 Express Line에서 제시하시면 빠르게 라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텐트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이며, 시간 외 도착 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경수 집사



교회학교  
창조과학 캠프 후기

## 기도의 응답



" Mom, I want to go to church tomorrow." 레이나는 분리불안장애와 사회성 결핍장애를 가지고 있는 11살 아이입니다. 5살이후 집 밖을 나가길 두려워하며 교회를 안 간지 6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7월 두번째 주일을 앞둔 토요일, 갑자기 제 옆에 앉은 딸 아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말했고, 아이에게 교회가 불안의 요소가 아닌 삶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여겨지길 바라며 인터넷을 통해 접한 베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지만 매주 일요일 아침 교회 갈 준비를 하는 모습

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박물관 견학 신청 후 교회의 배려로 딸과 함께 견학 승인을 받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저에게 " 왜 걱정을 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지!" 라는 남편의 이 한마디에 천주교 신자였던 남편이 첫 교회예배 후 점차 신앙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현장 학습날 아침, 교회버스를 타고 창조 박물관에 도착하여 첫번째 활동으로 극장에서 비디오를 시청하였습니다. 극장 안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청할 비디오의 장면을 자세히 재현하여 효과음과 특수효과로 이해를 돕고 극장입구에서 아이마다 대여해 준 어린 양 인형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확인해 주는 듯 하였으며, 두번째 활동은 아이들을 4조로 나누어 각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scavenger hunt & activities를 통해 박물관

관안의 여러 전시장들을 돌며 같이 답을 찾고 전시물들을 구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성경책에서만 읽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던 이번 박물관 체험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나가 견학을 잘 마쳐 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받거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창조 박물관 견학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God created everything and has a plan for his people을 온 몸으로 느끼며 공부할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며 특히 저희 가족이 이번 견학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윤진희 집사

###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혜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 지역광고

# Family Fall Fest x OICOF

올해 Family Fall Fest x OICOF가 곧 찾아옵니다! 10월 31일(금), OICOF(One In Christ On Friday)와 함께하는 Family Fall Fest가 작년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올해의 주제는 'Holy Spirit & Fire'로, 새롭게 단장된 Gospel Station, Crafts, Rides, 그리고 Food Truck까지 함께하여 다채로운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영아부 아이들을 위한 Play Area도 마련되어 있으니, 어린 자녀를 둔 가정도 안심하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고 예배로 마무리되는 특별한 하루가 될 이번 Family Fall Fest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Family Fall Fest 일시: 10월 31일(금) 오후 5-9시
- ▶ Check-In 시간/장소: 오후 4시 30분 부터, 코트야드
- ▶ Pre-Worship 시간/장소: 오후 5시-5시 30분, 본당
- ▶ Carnival, Stations & Food 시간/장소: 오후 5시 30분-7시 30분, 코트야드, 체육관, 비전센터
- ▶ OICOF Worship 시간/장소: 오후 7시 30분 - 오후 9시, 본당



###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11월)	10/26: ①부-김재호	②부-김정태	③부-김재훈	④부-박희주
	11/2: ①부-다무라고조	②부-김종학	③부-김진원	④부-변은재
	11/9: ①부-마상오	②부-박세환	③부-박성남	④부-이민수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0,11월) | 10/25: 김종철 11/1: 김호경 11/8: 김중현 11/15: 김홍우

강단꽃(10,11월) | 10/19: 이수민, 최지은 10/26: 이인철 11/2: 황미동, 황성희 11/9: 이선옥, 이성애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장진석(가정의학과), 간호사-황미례 다음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장한나

###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우,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람),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10월 마지막 날을 OICOF로!** 온 세대 예배는 'OICOS'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교회학교 Family Fall Fest에 우리 자녀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예배, 금요일 저녁 '오이코프(OICOF)'에 베델의 모든 성도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10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오후 5시 30분부터 맛있는 Food Truck이 오픈 됩니다. 구매 후 이용 가능)

◆ **동일본 대지진 15주년 기념 The Bridge Concert**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과 삶의 터전을 잃고 그날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많은 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와 도움을 전하기 위한 자선 음악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티켓 구매는 예배 후 코트야드에서 하실 수 있으며 당일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큐알코드를 스캔하시면 티켓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25일(토) 오후 6시, 본당  
티켓 문의: 코바야시 지나 권사 (213)531-7388



◆ **목장별 추수감사축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축제 'The Story of Bethel'로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목장별로 온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장기자랑과 전교인 저녁 만찬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 주일 코트야드 추수감사축제 부스에서 봉사하고 도네이션에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문의: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조광중 집사 (949) 706-4168

◆ **베델기도사역 연합기도회** 골방기도, 레위기도, 기도학교, 온라인 두드림으로 동역하시는 모든 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셔서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연합기도회 후, 기도학교 세미나로 진행되오니 기도학교 등록 중인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25일(토) 헵시바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양육반 연합모임 안내** 양육 동반자와 리더가 함께하는 양육반 연합 모임이 열립니다! 16주 과정 중 단 한 번 있는 연합모임에서 함께 훈련하고, 서로 격려하며 단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양육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은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25일(토) 오전 7시 30분, 체육관  
준비물: 성경, 큐티인, 일대일 양육 교재 (양육 리더와 동반자를 위한 아침을 제공합니다.)

◆ **BYM 중등부 겨울 수련회** 올해 BYM 중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Kainos'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12월 21일(주일) 3부 예배 후에 출발 예정입니다. 등록은 큐알코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12월 21일(주일)-23일(화), Pali Retreat  
대상/등록비: 6-8학년, \$225  
문의: Cindy Lee 전도사 (213)335-9049



◆ **BYM 고등부 겨울 수련회** 올해 BYM HOLOS 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RE:STORE'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12월 21일(주일) 3부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등록은 큐알코드나 PTA 카카오톡으로 공지해 드린 링크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12월 21일(일)-23일(화), Pine Summit  
대상/등록비: 9-12학년, \$225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 **교회학교 2025 Family Fall Fest x 오이코프 등록** 베델 온 가족 축제인 Family Fall Fest(10월 31일)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등록 링크는 각 부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문의: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각 부서 전도사

◆ **교회학교 캔디 드라이브** Family Fall Fest(10월 31일)에 자녀들을 위해 사용할 캔디 도네이션을 받는 캔디 드라이브가 시작됐습니다. 캔디 드라이브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드립니다. 견과류 제품이나 할로윈 장식이 있는 캔디는 피해주세요.

대상/문의: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각 부서 전도사

◆ **멕시코 일일선교 팀원 모집** 멕시코 일일 선교가 11월 15일(토)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모임 일시/장소: 11월 4일(화), 11일(화) 오후 6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최호경 집사 (714)398-3914



◆ **QTin 11/12월호 판매** 11/12월호 국문 QTin과 11월호 영문 QTin 교재가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 위로해 주세요

故 배철진 성도님(배경인 집사의 부친, 용복임 집사의 시부)께서 지난 10월 13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WANA(어와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li> <li>- Truth&amp;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li> </ul> </li> <li>■ <b>중,고등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li> <li>-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li> </ul> </li> <li>■ <b>한국학교:</b>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li> <li>■ <b>아기학교:</b>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중 새벽기도회(화-금):</b> 오전 5시 30분, 본당</li> <li>■ <b>헵시바 새벽기도회(토):</b> 오전 6시, 본당/온라인</li> <li>■ <b>베델 수요저녁예배:</b> 오후 7시 30분, 본당</li> <li>■ <b>예살금요예배(청년):</b>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li> <li>■ <b>주일 레위기도 모임:</b>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행인:</b> 김한요 담임목사</li> <li>■ <b>편집장:</b> 김경자 권사</li> <li>■ <b>기자:</b>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li> <li>■ <b>사진 기자:</b>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li> <li>■ <b>번역:</b> Grace Yi 전도사</li> </ul>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mailto: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Choong Kyung Lee

# Shining a Light of Salvation When Hope is Lost

Acts 16:26–34

1. Among the 3 doors leading to Christianity (door due to circumstances, door in quest for the truth, door due to special experience or crisis), which one did you enter? Please share your journey in faith.
  
2. As happened to the jailer in Philippi, have you ever experienced an urgent situation where you heard God's voice, "Don't harm yourself!?" How did that voice reach out to you (sermon, person, situation, etc.)? (v. 28)
  
3. Believing in Lord Jesus means you are accepting Jesus as your master. What area of your life are you not willing to open up to our Lord? (v. 31)
  
4. As the time when the jailer experienced being united with Jesus, "living and dying with Christ" through baptism, what must die within me every day? Are there any tendencies of hot-headedness, arrogance, covetousness, or hatred that you need to leave at the cross? (Ref: Gal 2:20, 1 Cor 15:31))
  
5. Because Jesus was bodily injured in our place, He wants us to avoid injuring our bodies. If we are to truly receive this grace, what must we do starting today to avoid hurting ourselves?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